

아마추어천문가 이기자



세상에는 다양한 취미가 있다. 그런데 취미에 따라서는 그것을 즐기는 대상이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 쪽에 편중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오디오나 자동차처럼 기계를 다루는 취미는 아무래도 남성이 많은 편이다. 아마추어 천문도 이런 경향이 있다. 단순히 별을 좋아하는 건 남녀의 구분이 없겠지만, 그 단계를 지나 천체망원경에 관심을 갖고, 야외로 나가 관측을 하고, 천체 사진을 찍는 것에 이르면 성비는 남성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만나게 될 이기자 씨는 '특별한' 경우이다. 여성 아마추어 천문가라는 점만으로도 주목받을 만한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다.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중에 최고령자라는 점이다.

“처음에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에서 천문지도사 연수를 한다고 해서 가도 되냐고 전화로 물었어요. 아무나 와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서는 너무 놀랐어요. 다들 제 자식보다 어린 분들이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잘못 왔구나.’, ‘다음에 다시 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이기자 씨도 많아야 40대, 대부분 20, 30대인 회원들 틈에 섞일 수 있을까, 혹시나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 동안 나이를 의식하지 않았는데, 천문학을 하면서 나이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 행동이 움츠러 들고, 말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주변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이런 걸 한다는 것에 대해 의아스럽게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혹의 눈길을 보내곤 합니다. 이걸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모 광고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던가. 이기자 씨의 말과 표정에서 그 광고카피의 의미가 절실히 느껴진다.

“주변에서 그 나이에 뭐 그리 멀리까지 일식을 보러 가고, 별을 보러 가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7월에 개기일식을 보러 갈 때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혹시나 가족들이 못 가게 할까봐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두고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은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중국으로 간 이기자 씨는 개기일식의 멋진 모습을 보며 아이처럼 필쩍 뛰었다고 한다.

“천문학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아니, 기쁘다기보다는 행복하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행복을 느껴보자고 권유를 합니다.”

이기자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천문학에 관심이 생겨서 천문지도사 연수를 받게 된 건 아니다.

“예전부터 천문학을 좋아했습니다. 학생 시절 때도 물리와 수학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 때도 관련 학과로 가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후에도 물리 공부는 늘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2005년쯤 우연히 대전시민천문대에 갈 기회가 생겼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 달을 보았다고 한다.

“그때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바로 제 앞에 커다란 달이 떡 하니 놓여 있는 것 같았죠. 가슴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연애할 때의 그 떨리던 느낌, 바로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천문학 관련 책을 사서 한 권, 두 권 읽은 게 벌써 스무 권이 넘었다고 한다. 작년 말에 읽기 시작한 시간의 역사는 아직도 다 읽지 못했다고 한다.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책을 읽을 때는 정독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란다.

“책을 읽고서 내가 안다는 정도에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는 걸 남에게 설명해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예요. 그래서 한 권을 최소한 세 번은 읽습니다. 그렇게 책을 보면서 천문지도사에 도전을 했죠. 3급도 어려웠지만, 2급은 정말 어렵더군요. 대학 입시 생처럼 시간표를 짜서 공부해서 재수 끝에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더군요. 자격증을 받을 때는 거기에 적힌 이름이 제가 맞는지 몇 번을 확인했어요.”

이기자 씨는 천문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것이 천문학을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천문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이 갖춰진 것이라고 얘기한다.

인터뷰를 한 곳은 한 오피스텔의 작은 사무실. 사무실 벽에는 중동 지역 뉴스를 볼 때 언뜻 보았던 그림 같은 문자들이 적혀있었다.

“이곳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늦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어도 배우게 되었죠. 별 보는 게 취미라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건 본업이죠. 그런데 요즘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많은 시간을 천문학에 쓰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이기자 씨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다. 환경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운동

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일은 누구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 살고자 해요. 사회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며 살고 싶어요. 이런 삶이 행복합니다.”

많은 일을 하다보면 힘에 붙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었지만, 이기자 씨는 자신에게 딱 맞는 정도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천문과 관련해서는 욕심이 하나 있단다.

“망원경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아직 손에 익지를 않아서 조작이 서툰데, 좀 익숙해지면 천체 사진을 찍어 보고 싶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내 손으로 사진에 담아서 손에 쥐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기자 씨에는 꿈이 있다. 서울 근교에 작은 돛이 있는 전원주택을 짓고, 그곳에서 아마추어 천문인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함께 공부도 하고 별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오래 꿈만 꾸고 있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에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이란다.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품고 있는 이기자 씨의 꿈이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본다.

